

긴급 재난 대책회의 주재

최훈식 장수군수, 폭우로 인한 재난재해 철저히 대비 강조

최훈식 장수군수가 10일 장수군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재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최 군수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 집중호우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별 취약시설 및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이틀 동안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수군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이번 호우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 계곡에 인접해 있는 마을과 산사태 위험 지역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피 장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저지대 배수로와 공사장, 낙석, 산사태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과 예방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12일까지 뇌우를 동반한 시간당 100mm~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수군은 10일부터 군청을 비롯한 7개 읍·면 비상단계를 실시반을 편성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며, 긴급복구에 대비해 읍면별 굴삭기, 덤프 등 장비투입과 관련해서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호우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예방 등으로 호우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하천변,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집중호우 위험 지역으로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군이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에 앞둔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고 축제 되기 위해 최선을”

무주군, 반딧불축제 앞둔 환경정비 나서

무주군이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제2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앞둔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3년 만에 열리게 될 이번 반딧불축제는 그만큼 여느 축제 때보다 관심과 성원 속에 치르게 되면서 많은 인파가 무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군은 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고 아름다운 시가지권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꽃 식재에 한창이다. 지난 8일부터 축제를 마무리할 때까지 가로수 관리단과 공공근로 인력 등을 투입해 주요 축제장 및 인근 진입로 등에 여름철 꽃보 2천여 본을 식재하고 있다.

당산교차로에 사파나 7천 본을 식재한 것을 비롯해 군청에서 한풍루에 올라가는 지점에 메리골드 1,500본에 대한 식재를 마쳤다. 그리고 무주 IC 교통섬에 메리골드와 남대천변과 강래구 카센터 일원에 사파나 품종을 식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이밖에 관내 주요도로 및 행사장 주변의 가로등을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중이다. 군은 무주를 시가지 가로등 252개소를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라제봉문~배재터널(위임국도 37호), 부남사거리~상하삼거리~덕유산 IC(지방도 49호~지방도 635호), 무풍~설천(군도15호), 군도와 위임국도의 잠목제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삼도봉터널~무풍면 도마(지방도 1089호), 무풍사거리~한제~상오정삼거리(지방도 1089호~군도11호) 등 지방도와 위임국도, 군도에 대한 도로변 제초와 나무의 웃자란 가지와 잎을 정리 해주는 정정 작업도 한창이다.

황인홍 군수는 "국내 최대 생태 축제의 반딧불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무주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진안고원 고추시장 14일 개장

4일·9일 장날에 맞춰 열려

진안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고추를 직접 살 수 있는 '진안고원 고추시장'이 오는 14일 개장한다.

진안고원 고추시장은 날짜 끝자리 4일, 9일마다 서는 진안장날에 맞춰 오는 10월 29일까지 오전 6시~11시 진안시장 임시주차장(진안읍 군상리 479-93)에서 열린다.

진안에서 생산된 고추는 일교차가 큰 고원에서 재배돼 다른 지역 고추와 달리 색깔이 곱고 독특한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고, 껍질이 두꺼워 고추가 루가 많이 나온다.

이처럼 품질이 우수한 진안 고추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의 고추 도매상들이 매년 몰려든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율개장으로 열린 지난해에는 총 91톤의 고추가 고추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진안군은 진안고추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고추 포장재 7만5,205매를 배부했다. 상품성을 높이고 타지역 고



진안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고추를 직접 살 수 있는 '진안고원 고추시장'이 오는 14일 개장한다.

추가 진안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현우 농축신유통과는 "마이산 고추포장재에는 농민의 이름과 생산연도가 기록되는 등 생산자 실명제를 철

저히 시행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다"며 "진안의 명품 농산물 중 하나인 고추를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고추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성 사전전 정비사업 나서

무주군이 사전전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나서 안성면 일대 하천 환경개선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영농생활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191억 원을 들여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와 사전리 일원 4.8km 구간에 대한 안성 사전전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정비 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해 오는 2024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량 8개소를 신설하며, 배수시설 27개소 등 하천을 정비한다.

안전재난과 김동필 과장은 "지방하천 사전전의 분류와 지류, 그리고 하천 연안의 농토,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



했다.

한편 군은 이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 올해 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준비해 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외국인 근로자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9일 진안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에는 현재 베트남 59명, 필리핀 50명, 기타 4명 등 총 113명의 근로자가 46개소에 배치돼 있으며, 하반기 결혼이민자 외국 거주 친척 중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사람 중 사증비자인증서를 신청하고 8월~9월에 진안군 농업발전 및 계절근로자의 상호이민이 되도록 48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에 선정 되어 농촌 일손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전반

적인 운영 및 어려움점 등을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운영 농가대표 3명, 진안군 농민회, 진안군 가족센터장, 군청 관계자 등이 모여 금년도 운영에 따른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마쳤다.

이번 간담회에서 합의된 결과는 근로시간에 대해 상호 의견차이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근무일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와 고용 전반 사항 관련은 군 담당부서로 일원화하여 상호 대립 발생 시 군 담당부서에서 통해서 조정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60세 이상 독거노인 코로나 취약계층 특별관리

진안군보건소(소장 송미경)는 10월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코로나19 재택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 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고령의 확진자의 경우 위중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어려워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진안군은 재택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소 인력을 총동원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보건소 재택치료관리반은 매일 2회 이상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필요 시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진안군은 질병관리본부, 전북대학교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근거 전국 25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건강통계조사로 주민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 대상가구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진안군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6명의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전자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체계측은 실시하지 않는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